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 음악 치료가 청각 장애 아동의 사회적응과 자아상 및 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Group Music Therapy Using the Traditional Drum on the Social-Adjustment, Self-Conception and Emotional-Adjustment of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대전대학교 예술치료학과

석 사 성 미 경*

교 수 정 광 조

배재대학교 심리철학과

교 수 최 애 나**

Dept. of Art Therapy, Daejeon Univ.

Master : Sung, Mi-Kyeong

Professor : Cheong, Kwang-Jo

Dept. of Psychology & Philosophy, Pai Chai Univ.

Professor : Choi, Ae-N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roup music therapy using the traditional drum on the; social adjustment, self-image, and emotional adjustment, of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I participated in this group music therapy using the traditional drum with 7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for 3 days a week for 6 weeks(including holidays), and each session was 50 minutes long.

The evaluation form of this study is a social-emotional development measurement sheet of Meadow-Kendall, which the children's teacher distributed to the children both pre- and post-examination. With these results, the researcher carried out Window SPSS 19 Version and searched for the experiment's effect of measurement cause (I am not sure what this means.) through paired t-test to identify the experiment's effects (social adjustment, self-image, emotional adjustment) as a result of group music therapy using the traditional drum fo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This study arrived at the following conclusions.

Frist, after I participated in the group music therapy using the traditional drum, the result of the comparisons of the pre-to-post average for social adjustment show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of the 0.01 standard.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group music therapy using the traditional dru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Second, after I participated in the group music therapy using the traditional drum, the result of the comparisons of the pre-to-post average for self-image development show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of the 0.01 standard. Therefore, the group music therapy using the traditional dru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elf-image of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Third, after I participated in the group music therapy using the traditional drum, the result of the comparisons of the pre-to-post average

* 주 저 자 : 성미경(E-mail : mkidfun@naver.com)

** 교신저자 : 최애나(E-mail : aena617@hanmail.net)

for emotional adjustment show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of the 0.01 standard. Therefore, the group music therapy using the traditional dru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motional adjustment of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주요어(Key Words) : 전통 북을 활용한 음악 치료(group music therapy with traditional drum), 사회 적응(social-adjustment), 자아상(self-conception), 정서적응(emosion-adjustmen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각장애는 다른 장애와는 달리 쉽게 눈에 띄지 않으므로 '숨은 장애'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청각의 손실로 인하여 듣고, 말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아는 외모적으로는 건청 아동들과 구분되지 않지만, 다른 장애 영역의 아동보다 정서적 문제 및 심리적인 불안감을 많이 나타내며 사회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Lee, 1989).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태중에서 소리를 듣기 시작하여 훈수상태에서도 청각은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아는 태중에서부터 소리자극에 대한 불리한 수용 경험으로 건청 아동과 마찬가지로 시작하는 웅얼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며 자라게 된다. 이렇게 청력손실을 갖고 자란 청각장애아들은 부가적인 언어 결함 때문에 자기 표현에서 제한된 경험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지하고 이해함에 있어 결과적으로 지체를 갖게 된다(Lee et al., 2009).

청각장애아의 행동특성으로 Levine(1981)은 '자기중심성, 충동성, 피 암시성'이라 하였고, Lewis(1979)는 '자각의 미숙, 자기중심적, 자기 확신의 부족, 주도성의 부족, 고집스러움' 등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청각장애아의 행동특성들은 청각장애아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래와 상호작용 기회가 적고 제한된 의사소통 능력 때문에 미성숙한 사회행동을 보이며, 사회인지 능력의 결여와 사회적 규범을 학습하는데 곤란을 겪는다(Eu et al., 2010).

최근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청각장애아는 상대적으로 건청 아동에 비해 더욱 고립되고 소외됨에 따라 개인적 또는 사회적 외적 자극에 대한 대처능력의 저하와 장의존적 특성 등이 나타나면서 학교생활의 적응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부적응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Choi, 1997).

Meadow-Orleans(1985)는 흔히 청각장애인들이 절망감, 움츠림, 소외감을 표현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시각적 단서의

의존도가 높은 청각장애인들은 건청인들의 얼굴, 입술, 손, 몸짓 사용 등을 응시하는 특징으로 인하여 청각장애인들이 무례하다고 생각되므로 더욱 고립될 수 있다. 즉 청각장애는 의사소통 문제를 야기하고, 의사소통 문제는 사회·행동적 어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다(Lee et al., 2009). 따라서 청각장애아에게 사회적 인지 능력을 길러 주어 상황에 맞는 대처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켜 상호작용의 기회가 증대되도록 해주어야 하며, 교육과 의사소통 환경, 상호작용 환경을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사회성 발달을 향상시키게 해주어야 한다(Paul & Jackson, 1993).

이처럼 청각장애아의 사회 및 학교생활 적응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적절한 사회·정서발달이 성공적인 지역사회 통합의 조건이 된다고 하였으며 청각장애아에 대한 연구로 언어와 청능 훈련, 의사소통의 효과 연구가 있다.

국내에서 청각장애아를 대상으로 사회·정서발달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Lee(2006), Song(2005), Lee(2005)의 게임놀이, 집단놀이 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레크레이션 활동, 스포츠 활동,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사회성 및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Sohn(2003)의 '청각장애 학생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연구', Seo(2001)의 '청각장애학생의 정서/행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최근에는 미술, 음악, 무용 등의 비언어적 표현 수단을 교육적 혹은 심리 치료적 매개로 적용하는 연구들이 언어 표현에 제한적인 청각장애아의 정서적 안정과 전인적 성장에 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다(Kim & Jang, 2008).

청각장애아를 대상으로 음악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Kim(1994)의 '청각장애아의 음악지도에 관한 소고', Chung(2010)의 '음악지각훈련프로그램이 인공와우 착용 아동의 음악지각에 미치는 효과', Heo(2010)의 '음악활동 수행에 있어 청각장애아와 중복장애아의 수행능력 비교연구', Chung(2008)의 '인공 와우 이식 아동의 언어 향상에 관한 사례연구', Park(2005)의 '작 집단 음악활동이 청각장애아동의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사례연구', Lee(2011)의 '건청학생과

청각장애학생의 정서지능과 음악정서지각 관계 연구', Lee (2010)의 '인공와우와 보청기 착용 청각장애아동의 음정과 리듬 지각에 대한 비교 연구' 등이 있다.

이처럼 국내의 연구에서 청각장애아를 대상으로 사회·정서발달 측면을 다룬 연구와 음악과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비해, 최근까지 음악치료를 적용하여 사회·정서발달을 다룬 선행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청각장애아에게 예술적 접근으로 사회·정서발달을 다룬 선행연구로는 미술치료와 동작/무용교육을 통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Kim(1987)은 청각장애아의 절반 이상이 음악을 좋아하며, 음악이 청각장애아의 일상생활과 감정 변화에 도움을 주고 실제적인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합한 도구임에 동의하나, 청각장애아를 위한 음악교육에 대한 전문성 결여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고, Kim(2000)은 청각장애학교의 경우 특수학교 중 음악수업 활동이 가장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음악이라는 과목이 청각적 비중이 매우 높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 프로그램으로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제시하며, 청각장애아를 위한 사회·정서발달 연구의 관심도를 높이고, 소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음악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악은 소리에너지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아의 음악활동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 의하면 청각장애아도 정상 청력을 가진 건청 아동과 마찬가지로 풍부하고 다양한 감각을 지니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Edward(1975)는 청각장애아를 위한 리듬연구에서 리듬을 통하여 몸동작, 휴식, 발음, 말(언어)의 과정을 익힐 수 있고, 청각장애아에게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건청 아동에게 음악을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밝히며, 청각장애아의 리듬감각을 증진시키고 소리의 즐거움을 인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 Michel(1976)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에서 음악의 질서 있고 조화로운 진동의 사용이 주의집중에 도움이 되고, 음악의 리드미컬한 박동은 사회적인 관계형성을 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청각장애아를 위한 음악교육에서는 청각과 시각 이외에 촉각, 진동감각 그리고 움직임을 통한 근육운동 및 감각훈련 방법을 주로 이용하여 음악 안에서 음악의 리듬을 지각하고 자신의 몸동작이나 수화를 통해서 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음악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

Kim(2004)은 북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오래된 악기 중 하나로 그 소리는 공명과 울림판이 큰 통김의 소리 미학이 있고, 음계가 없는 이 원시적인 타악기 북의 반복적인 소리는 신명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고 하였다. Lee(2007)은 진동을

이용한 북 연주는 스트레스 해소와 역동적인 에너지를 분출하는 기능으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의 내적인 심리를 표현시키고 자아의 힘을 키우는 효과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각장애아를 위한 사회·정서발달 프로그램으로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제시하며, 청각장애아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갖고 개인의 욕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사회적응·자아상·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들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1]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사회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자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3]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정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청각장애아와 사회·정서발달

1)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 특성

청각장애아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미숙하고 과잉행동적인 반응을 보이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보인다(Moors, 1978; Meadow, 1980). 또한 청각장애아는 건청 아동에 비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혼돈된 자아개념을 가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Lee, 2006).

그런데 이러한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 특성은 청각장애아의 행동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경향성'일 뿐, 청각장애아가 고유하게 혹은 두드러지게 보이는

사회·정서발달의 전형적(typical)특성이 특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청각장애아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그 대부분은 양육과 교육의 과정에서 부모 및 가족들과 어떤 상호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에서 어떤 학습/학교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상당히 극복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Kim et al., 2008).

이처럼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 특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특히 언어의 습득 및 발달 정도와 사회성 발달은 깊은 관계가 있다. 언어의 발달이 지체된 아동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적어지며 그로 인하여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Gu et al., 2004).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 검토되기 시작하여 이에 관련된 연구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런데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이론은 청각장애아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청각장애교육 분야에서도 Schlesinger and Kennedy(1972) 등에 의해 청각장애아의 문제에 적용되어 논의되고 있다.

2. 청각장애와 음악치료

1) 사회·정서적응을 위한 음악치료

음악치료는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연습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리드미컬한 진동으로 많은 활동을 즐기게 하며 음악적 활동의 구조에 따라 지시된 수행을 할 때, 성공에 대한 인정이 강화되며, 안전하고 격려하는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긍정적인 경험은 파괴적인 사회태도를 예방할 수 있다(Choi et al., 2009).

청각장애아는 음악치료에 참여하는 동안 자기 조절감과 구체화된 감정적인 배출구를 얻게 되고, 말로 표현하기 힘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느낌들이 음악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비언어적 행동 혹은 '몸짓 언어' 등으로 드러나므로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Chung & Park 2009).

청각장애아는 미성숙한 행동이나 부정적인 행동으로 주위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아동에게는 청능 훈련, 언어이해능력, 사회적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치료목표로 차례 지키기, 지시 따르기, 서로나누기, 협동하여 연주하기, 주의집중하기, 자기감정 표현하기 등으로 정한다(Lee, 2010).

청각장애아에게 음악치료는 듣기 능력 외에도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성장을 꾀할 수 있으며 단순한 음악적 리듬과 관련된 게임이나 신체활동을 통하여 협응성과 자기표현 및 학습능력을 증진시켜준다(Kim, 2005). 음악치료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과 관심의 초점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이 연주하지 않는 동안 자신의 부분을 연주함으로써 충동

조절을 증진시킬 수 있고, 악기의 사용은 훈련과 통제를 학습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며, 리더의 경험은 아동의 통솔력을 기르도록 도와준다(Choi et al., 2009).

이처럼 음악치료의 경험은 성인과 아동의 교류뿐만 아니라 구성원과의 교류 등 사회·정서적응에 도움이 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사회적 교류는 긍정적인 자아상과 많은 관련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 북을 활용하여 차례 지키며 북 연주하기, 지시 따르기, 북 연주로 타인의 감정 공감하기, 협동하여 북 연주하기, 주의집중하기, 순발력 기르기, 타인을 배려하며 리듬전달하기, 손짓신호로 지휘하기, 손짓과 몸짓표현으로 연주유도하기, 북 이동하며 징검다리 연주하기 등 사회·정서적응을 위한 집단음악치료를 제시하였다.

2) 자아상을 위한 음악치료

청력손실을 가진 아동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관상 다르게 보이는 문제 때문에 부정적 피드백과 반응을 받으며, 비교적 낮은 자아상을 형성시킬 수 있다(Lee et al., 2009).

Gaston(1968)은 음악이 비경쟁적 성취를 허용하므로 안정된 상황 속에서 자신에 대한 바람직한 자아상을 갖도록 도와준다고 하였고, Lathom(1980)은 자신이 집단에서 필요하고 기여할 수 있으며 환영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였다.

Sears(1968)는 음악은 성공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느낌을 제공하고, 함께 참여하는 구성원에 의해 자긍심이 확대되는 기회와 더 나아가 음악을 통해 자아를 각성시키며 감정의 긍정적인 배출구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음악치료에서 악기 사용은 특별한 기술 없이 성공적인 연주가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경험은 구성원의 만족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에 도움을 준다(Boxill, 198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아에게 집단 구성원 속에서 전통 북을 활용한 성공적인 악기 연주, 노래 만들기, 자유즉흥연주, 작은 발표회, 장단연주하기 등 긍정적 자아상 형성을 위한 집단음악치료를 제시하였다.

3) 의사소통을 위한 음악치료

청각장애아는 언어 지체 때문에 자기표현의 제한을 갖고 있으며, 기초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정서적인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자기이해 부족을 초래하고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Paul & Jackson, 1993). 또한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 지체 때문에 의사소통을 지배하는 사회적 규칙을 학습하기 어렵게 되어,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적게 가지게 된다(Lee

et al., 2009).

청각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에서는 아동 자신의 소리를 생성하고 모방을 격려하는 소리의 요소를 만들기 위한 흥겨운 리듬과 음악적 주파수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다. 음악은 정서적인 면을 의사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고, 타악기는 의사소통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어 다른 사람이 만드는 소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소리를 만드는 것과 소리(혹은 진동)에 반응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강도, 지속적인 시간, 촉각을 통해 지각될 수 있고 진동을 만들어 내는 악기는 더욱 바람직하다(Choi et al.,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동이 크고 강한 리듬감으로 음악적 자극 요소가 전달될 수 있는 전통 북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북 연주로 표현하기, 타인의 북 연주소리를 듣고 감정카드 찾아내기, 자신이 만들어 낸 리듬을 북 연주로 표현하기, 타인에게 리듬 전달하기 등의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는 청각장애아에게 비언어적인 자기표현의 기회와 긍정적인 성취감 경험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 기회와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환경을 제공하여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주고자 한다.

3. 전통 북 활용과 집단음악치료

북은 꾸밈새가 간단한 까닭으로 그 역사가 오래되고 세계 어디에서나 그 발생을 볼 수 있으며 각 민족의 특성을 지니며 발달해 왔다. 북은 곳과 쓰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사물놀이의 악기 가운데서 북은 가장 오래된 악기이다. 그 까닭은 청동기시대 이전의 목축시대에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악기이기 때문이다(Choi, 2001). 북의 기원은 원시음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냥을 위하고 집단 노동의 강화와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 또는 사기진작과 종교적 의식의 필요에 의해서 북이 기원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Kim, 2004).

북의 형태는 중국에서 전래되어 그대로 사용되는 형태와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개량되어 발전된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Seong, 2003 Recite), 북을 제작할 때에는 통나무로 된 오동나무나 미루나무의 중앙부분을 파내어 여기에 소가죽이나 말가죽을 대고 줄을 엮고 조여서 만든다. 이때 양 북면을 잡아당기는 줄 밑에 썰기를 넣어 줄을 팽팽하게 한다. 이것은 북의 소리가 보다 알차게 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이다(National Gugak Center, 1998).

북은 소리와 문식에서 태양의 상징물이다. 모든 타악기는 둥그런 모양이 기본 형태인데, 원은 예로부터 가장 완전한 형태로서 하늘이나 태양, 원초의 완전함과 신성함, 무한, 영원 등을 의미한다. 태양의 상징물인 북이 의기(儀器)로서 신

화와 종교 속에 들어가 신과의 소통언어로서 신비하고 영적인 북소리를 하늘에 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북의 문화인 것이다. 즉, 북소리로 신의 뜻을 헤아리고 북소리로 자신의 뜻을 신에게 전하는 신비성을 부여하여 신과 사람을 소통시키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Kim, 2004).

북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이름과 모습을 가진 많은 북이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 개량되어 보편적으로 연주되는 모습 북은 1987년 중앙 국악관현악단 타악 연주자였던 김규형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국악 관현악으로 편성된 형태에 기존의 전통 타악기인 장구나 북장단만으로 효과를 내기가 어려워 새롭게 개량해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eong, 2003 Recite).

모듬북 활동은 특수학교 음악교육에서 양손의 상하 동작만으로 소리를 낼 수 있어서 자신감과 흥미를 갖게 하고, 반복적인 리듬패턴은 집중력과 연주기능의 향상을 기대하며, 신체동작을 동반할 수 있어 재미있고 활동적인 연주가 가능하다. 또한 집단 연주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행동과 소리를 의식해야 참여가 가능하므로 사회적 행동을 경험할 수 있다는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Kim, 2011 Recite).

여러 타악기 중에서 북은 사물놀이 악기의 하나로서 장구와 함께 장애 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한 악기이며, 음악치료 분야에서 긍정적인 리듬 경험, 신체 기능의 활성화, 표현력과 긴장 이완, 집단 활동을 통한 그룹 정체감 및 소속감의 형성 등에 관심을 갖고, 근래 다양한 문화권에서 전통 타악기 북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Lee, 2004 Recite).

최근 모듬북과 난타를 적용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행되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yeon(2011)는 모듬북을 중심으로 학습부진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안한 타악기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중 학업적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변화를 보였고, 학습부진학생들에게 국악 타악기를 이용한 수업은 부담을 갖지 않게 하며, 타악기의 소리를 귀로 듣고 자연스럽게 몸으로 움직이면서 연주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교육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Kwak(2008)은 모듬북을 통한 통합리듬 연주와 동작퍼포먼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국악장단과 ‘북’이라는 악기에 더욱 친숙해지고 리듬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고, Kim(2006)는 난타를 이용한 리듬지도 방안 연구결과 박자와 리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4분 음표 기본 박, 분할 박, 점으로 표치기 등의 기능과 난타기본 리듬치기, 리듬 즉흥연주하기 등을 통한 리듬창작 능력이 향상되었고, 리듬감, 창의력, 발표력, 자신감 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Lee(2004)는 모듬북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집단음

악치료 프로그램이 우울경향 중학생의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 중 자기주장과 확신에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Kim(2011)은 특수학교(중등)학생들을 대상에게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악기로 모듬북을 선정하고, 모듬북 장단을 지도한 결과 능력별 연주 과제의 단계적 제시는 대상자들의 사회, 인지, 언어, 운동, 연주 기능의 향상에 효과적이었고, 모듬북 연주는 장애학생들이 국악장단의 과제분석과 국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는데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Han(2010)은 다양한 음악에 접목시켜 만든 창작프로그램을 통해 공연 곡에 이르기까지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듬북을 활용한 창작난타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적 효과로는 활동중심의 수업으로 자발적인 참여 의지와 모듬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의 기회 제공과 강한 소속감을 조성시키며, 반복훈련을 통한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Kim(2009)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난타의 리듬을 활용한 국악장단지도 방안 연구에서 난타리듬 활용은 음악을 쉽고 즐겁게 익히고 더 관심을 갖게 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악기구입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고, 악기이동이 간편한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북과 북 받침대를 활용하여 집단형태의 음악치료를 제시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소도시에 있는 ○○청각장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청각장애 이외의 감각적 혹은 기능적 결손이 없는 7명의 청각장애아를 선정하였다. 또한 이들은 문화적 수준이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기숙사 생활이 아닌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동으로 집단 음악치료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부모가 동의한 아동들이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아를 대상으로 사회·정서발달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Meadow-Kendall의 청각장애학생용 사회·정서적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Meadow(1980)교수가 청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정서적 평가를 위해 개발한 것으로 사회적응, 자아상, 정서적응 등에 걸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검사는 아동의 행동을 최소한 8주 이상 직접 관찰한 경험이 있는 교사와 부모에 의해 각 행동목록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본 검사의 기준은 7~15세까지의 남녀와 16~21세까지의 남녀로 나뉘어 각각 제시되고 있으며, 각 척도의 소점은 퍼센트로 각각 해석

Table 1. Individual Characteristic

	A	B	C	D	E	F	G
성별	남	남	남	남	남	남	남
연령 (만)	9세	10세	10세	11세	11세	13세	13세
청력정도 (dB)	107	100	95	100	100	95	100
	교정 80	*	교정 45	교정 50	교정 60	교정 80	교정 80
보조기구	보청기	*	보청기	인공 와우	보청기	보청기	보청기
청력 손실시기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의사소통	수화	수화	구화	수화	수화	수화	수화
	구화	구화	몸짓	구화	구화	구화	구화
부모 청력	농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형제자매	*	건청 형제 1명	건청 형제 1명	건청 여동생 1명	농 형제 1명	농 형제 1명	*
생활	가정	가정	가정	가정	가정	가정	가정

Table 2. Meadow-Kendall Social and Emotional Measurement Tools of Reliability Analysis

영역	항목 수	사전
		Cronbach's α
사회적응	23	.684
자아상	23	.885
정서적응	13	.469
전체	59	.871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Kim et al., 2008).

본 연구에서 사용된 Meadow-Kendall의 사회·정서 측정 검사 도구는 김병하가 한국 언어와 실정에 알맞게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59문항 중 사회 적응을 측정하는 문항이 23문항, 자아상을 측정하는 문항이 23문항, 정서 적응을 측정하는 문항이 13문항으로 되어 있다. 설문지의 평정 척도 방법으로는 0점(맞는지 틀리는지 알쏭달쏭하다), 1점(전혀 틀린다. 어떤 경우이든 결코 이 학생의 행동특성이 되지 않는다), 2점(틀린다. 이 학생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3점(맞다. 때때로 이 학생의 행동에 해당된다), 4점(꼭 맞다. 대부분의 이 학생의 행동 특성을 아주 적절히 진술한다)이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사는 검사 문항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한 문항 내적 합치도를 구하는 신뢰도 검사 방법 중의 하나인 SPSS 19버전을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3. 음악치료 프로그램

1) 목표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아의 사회적응·자아상·정서적응의 변화를 통한 사회·정서 발달을 돕는다.

2) 활용되는 악기와 도구

집단음악치료의 주요 악기로는 전통 북을 활용하여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타인의 감정 이해와 음악적 자기표현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전통 북은 북 받침대를 이용하여 청각장애아가 서서 자유로운 동작활동과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물 북채 2개를 이용하여 양손 연주가 가능하게 하였다. 심벌즈는 자유즉흥연주에서 연주의 끝을 알리는 표현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치료사는 피아노로 즉흥연주의 기본 박을 연주하여 주었다. 악기이외의 도구로는 집단음악치료의 시각적 정보자료로 노래의 가사내용을 전달하였고, 말 리듬악보를 제시하여 음악의 장단(리듬)을 전달하는데 활용하였다.

3) 사용된 음악

아름다운 선율을 지닌 노래나 음악보다는 북 연주에 동기 유발을 자극할 수 있는 곡으로 창작동요 <북소리>, <연날리기>와 전래동요 <꼬부랑 할머니>를 선택하였고, 북 연주와 함께 동작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곡으로 음악의 흐름이 역동적인 <로봇 태권V>를 선택하였다.

음악소리를 들려줄 때 음향이 전체 구성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카세트의 방향과 소리의 크기를 구성원들의 청력 수준에 맞추어 조절하였다.

4) 집단음악치료의 활동구성

음악치료의 형태는 집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단구성원들이 북을 연주하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마련하였다. 주 3회기 50분으로 진행된 집단음악치료의 활동구성은 만남의 시간으로 인사장단을 연주하며 구성원들과 인사 나누고,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 등을 개별 즉흥연주를 통해 표현하도록 하였다. 활동의 제목을 적은 카드를 보여주며 오늘의 활동을 소개하고, 계획된 음악치료 활동을 실시하였다. 활동의 마무리에는 얼굴표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오늘 활동의 느낌을 이야기 나누고, 감사장단을 연주하며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5) 집단음악치료의 활동내용

본 연구는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 따라 청각장애아의 언어·정서·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Kim(2005)의 '행복을 주는 음악치료'와 Go and Chae(2008)의 '청각장애아와 언어장애아동을 위한 이완놀이'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도입단계(1~3회기), 초기단계(4~7회기), 중기단계(8~11회기), 종결단계(12~15회기)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의 활동내용은 <Table 3>과 같다.

4. 자료 분석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를 통하여 청각장애아의

Table 3. Group Music Therapy Activities

단계	회기	관련 목적	활동주제	활동내용
도입	1	관계 형성	나는 최고야	자기이름을 북 연주로 소개하기
	2	표현력	그림자 소리	리더의 움직임을 북 연주로 공감하기
	3	타인 인식 집중력	나는 지휘자	리더의 지시에 따라 북 연주하기
초기	4	표현력	내 마음의 청진기	감정카드를 보고 북 연주하기
	5	의사 소통	움직이는 소리	북 연주로 리듬전달하기
	6	자긍심 사회	손짓소리	리더의 손짓에 따라 3·3·7장단 연주하기
	7	교류	내가 만든 리듬이야기	말 리듬을 만들고 북 연주하기
중기	8		바람개비 연주	신호에 따라 이동하며 북 연주하기
	9	민첩성	도전 북소리	노래<북소리>에 맞추어 난타동작 익히기
	10	자존감	북 즉흥연주	모듬 북 즉흥연주
	11	지속성 표현력	연날리기	노래 부르기와 북 연주하기
종결	12	사회	징검다리 연주	박에 맞추어 북 이동하며 연주하기
	13	기술	파도연주	리듬을 북 연주로 연결하기
	14	의사 소통	나만의 향기	노래<친구에게> 노랫말 완성하기
	15	자긍심 성취감	작은 발표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기

사회·정서발달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Meadow-Kendall 청각장애학생 사회·정서 측정도구를 이용해 집단음악치료 실시 사전·사후에 학교환경에서 대상자를 관찰한 담임교사에게 측정하고, 평균을 측정변수 값으로 하여 집단음악치료 사전·사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자료 분석은 통계처리프로그램 Window SPSS 19버전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고, 프로그램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유의성 검증은 동일집단에서 두 번의 반복된 측정이므로 쌍별-t검증(Paired-Sample t-test)를 실시하였다.

Paired T-test를 통한 각 하위요인별 사전·사후의 평균에 대한 비교에서 유의수준을 사회적응과 정서적응은 0.01을 기준으로, 자아상은 0.001을 기준으로 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음악치료가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1)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1) 사회적응에 대한 전체적인 변화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사후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집단음악치료를 경험한 청각장애아의 사회적응에 대해서 사전·사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유의수준 0.01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청각장애아의 사회적응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적응에 대한 개인적인 변화

사회적응에 대한 개인별 대상의 사전·사후 검사의 변화는 <Table 5>와 같다.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적용한 후 사회적응에 대한 측정문항 중 전체 대상자들에게서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된 내용은 ‘<3> 급우들의 것을 모방하려 하지 않고 남의

Table 4. Comparing Pre-and Post-Social Adaptation

하위요인	N	M	SD	t	유의확률	
사회적응	사전	7	2.95	.26	-6.431**	.001
	사후	7	3.17	.23		

** $p < .01$

Table 5. Social Adaptation for Individual Change

대상	사전	사후	변화량
A	2.87	3.04	0.17
B	3.04	3.43	0.39
C	3.00	3.17	0.17
D	2.48	2.78	0.30
E	2.87	3.09	0.22
F	3.30	3.43	0.13
G	3.09	3.26	0.17
Total	2.95	3.17	0.22

Table 6. Self-Image Compared Pre-and Post-

하위요인	N	M	SD	t	유의확률	
자아상	사전	7	2.76	.43	-7.071***	.000
	사후	7	3.01	.37		

*** $p < .001$

물건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14> 다른 학생과 싸우거나 때리는 행동, 동물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을 한다.'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응에 대한 개인별 변화를 살펴보면 사후 검사에서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낸 대상은 B아동이었다. 이는 의사소통 방법 중 수화와 구화를 병용하여 사용할 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교우와 교사와의 관계가 좋아 사회·정서 적응 면이 높다는 Park(1988), Sohn(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 자아상에 미치는 영향

(1) 자아상에 대한 전체적인 변화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자아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사후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6>와 같다.

집단음악치료를 경험한 청각장애아의 자아상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유의수준 0.001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청각장애아의 자아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자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2) 자아상에 대한 개인적인 변화

자아상에 대한 개인별 대상의 사전·사후 검사의 변화는 <Table 7>과 같다.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적용한 후 자아상에 대한 측정문항 중 전체 대상자들에게서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된 내용은 '<14>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나타내 보인다.(예: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으로 동일시한다.)', '<8> 학업이나 여가놀이 활동에서 창의력을 보인다.', '<10> 다른 학생들이 이 학생을 리더로 생각한다.', '<15> 자신의 체격이나 용모나 개인적인 능력에 자신감을 갖는다. 적어도 자신은 보통 이상으로 아름답거나 날씬하다고 생각한다.'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상에 대한 개인별 변화를 살펴보면, 사후검사서 전체 대상자들이 향상되었는데, 특히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낸 대상은 C와 D아동이었다.

이는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은 양육과 교육과정에서 부모 및 가족들과 어떻게 유지하며, 학습/학교 문화 속에

Table 7. For Individual Changes in Self-Concept

대상	사전	사후	변화량
A	3.43	3.56	0.13
B	3.17	3.43	0.26
C	2.17	2.52	0.35
D	2.43	2.78	0.35
E	2.56	2.87	0.31
F	2.87	3.00	0.13
G	2.70	2.91	0.21
Total	2.76	3.01	0.25

Table 8. Comparing Pre-and Post-Emotional Adaptation

하위요인	N	M	SD	t	유의확률	
정서 적응	사전	7	2.97	.30	-12.755***	.000
	사후	7	3.42	.35		

* $p < .05$, ** $p < .01$, *** $p < .001$

Table 9. Emotional Adaptation to Individual Change

대상	사전(M)	사후(M)	변화량
A	3.31	3.92	0.61
B	3.23	3.62	0.39
C	2.38	2.77	0.39
D	2.92	3.38	0.46
E	2.92	3.31	0.39
F	3	3.54	0.54
G	3	3.38	0.38
Total	2.97	3.42	0.45

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상당히 극복될 수 있음을 밝힌 Kim et al.(2000) 여러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

3) 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

(1) 정서적응에 대한 전체적인 변화

전통 복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사후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집단음악치료를 경험한 청각장애아의 정서적응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유의수준 0.001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전통 복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는 청각장애아의 정서적응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정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2) 개인별 대상에 대한 정서적응 변화

정서적응에 대한 개인별 대상의 사전·사후 검사의 변화는 <Table 9>와 같다.

전통 복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적용한 후 정서적응에 대한 측정문항 중 전체 대상자들에게서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된 내용은 '<2> 이상하거나 별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8>분명한 근거도 없이 어딘가 아프다고 투덜거린다.', '<4> 응급 치료를 요하는 사고나 물건의 파손 등 여러 가지 사고를 저지른다.', '<5> 자신의 운동 기능이나 숨쉴, 눈에 보이는 신체적 장애 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9> 신체적 기능의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구, 용구, 기재 등을 다루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응에 대한 개인별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낸 대상은 A아동이었다.

이는 정서적응에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의사소통 방법

이 수화와 구화를 사용 할 경우와 교사와의 관계가 좋아 교사의 지지를 받을 경우이며, 또한 청력 손실이 높은 청각장애학생이 청각장애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경우가 정서적응력이 높다는 Sohn(2011), Park(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각장애아에게 우리나라 전통 타악기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청각장애아에게 집단음악치료를 적용한 사전·사후에 사회·정서발달의 사회적응·자아상·정서적응에 각각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아에게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실시한 결과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사회적응·자아상·정서적응의 측정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1) 청각장애아에게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응에 대한 측정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Choi & Lee(2007)의 자유로운 대화나 신체접촉을 유도하는 활동이 청각장애학생들의 자유로운 관계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Kim(2011)의 음악을 통한 자기표현은 타인과 소통으로 이어져 음악치료를 통해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연구, Gwon(2009)의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이 개방적 의사소통을 늘리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다는 연구와 Choi et al.(2009)의 음악치료 속에서 파괴적인 사회태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론을 지지한다.

2) 청각장애아에게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실시한 결과 자아상에 대한 측정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자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Kim(2011)의 청각장애아들이 음악치료를 경험하는 동안 몰입과 창의적 표현, 만족과 성취로 나타났다는 연구, Song(2005)의 집단놀이 활동이 청각장애아동의 자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Yoon(2001), Lee(2008)의 음악치료가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3) 청각장애아에게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실시한 결과 정서적응에 대한 측정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정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Kim(2011)의 청각장애아는 음악치료 경험으로 자기생각과 느낌, 욕구를 음악적·행동적으로 표현한다는 연구, Kim(1987)의 청각장애아도 음악을 좋아하며 음악이 일상생활과 감정 변화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Lee(2007)의 진동을 이용한 북 연주는 스트레스 해소와 역동적인 에너지 분출의 기능으로 청각장애인들의 내적인 심리를 표현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청각장애아동의 자기표현 내용적 요소는 지시적이고 구조화된 신체표현 활동이 효과적이고, 자세와 제스처, 신체적 공간지각과 같은 자기 집중적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청각장애아동의 자기표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 Kim & Jang(2008)의 연구를 지지한다.

둘째,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집단음악치료가 전통 북은 비언어적 감정표현 및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활용되고 저주파의 음역을 지닌 북 소리의 진동자극은 음악적 지식이 없는 청각장애아들의 연주를 쉽게 유도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 되었다. 따라서 전통 북의 활용은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사회적응·자아상·정서적응 능력향상을 위한 집단음악치료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집단음악치료에서 전통 북의 활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통 북은 비언어적 감정표현 및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활용되어, 음악을 귀로 듣기보다는 진동으로 느끼고 몸으로 감지하는 청각장애아의 감각자극을 활성화시켰으며, 저주파를 지닌 북 소리는 잔존청력을 자극하며 소리의 유무를 구별하게 하였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리듬적인 진동은 리듬, 강·약, 빠르기, 표정, 동작 등 다양한 표현방식을 유도하는데 활용되었다.

2) 저주파의 음역을 지닌 북 소리의 진동자극은 청각장애아의 연주를 쉽게 유도하였고, 연주를 통해 구성원간의 관계형성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차례 지키기, 지시 따르기, 협동하여 연주하기, 타인의 연주 공감하기 등을 유도하는데 활용되었다.

3) 전통 북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 되었다. 북 연주에서 질서와 구조를 지닌 리듬은 청각장애아의 언어와 동작을 연결시키며, 창의적인 말 리듬을 만들어내고 타인에게 소리를 전달하며, 의미 있는 소리에 반응하는 소리지각능력을 활성화시키는데 활용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 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사회적응·자아상·정서적응)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전통 북의 활용은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집단음악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며, 청각장애아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집단음악치료의 활동영역과 사회·정서발달 연구의 범위를 넓히는데 참고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REFERENCE

- 고은 · & 채기화(역)(2008).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아동을 위한 이완놀이**. Cornelia Kapfhammer · Michaela Nachtrab 서울: 시그마프레스.
- 구본권 외(2004). **특수교육학 제2개정판**. 서울: 교육과학사.
- 김관일(1994). 청각장애아의 음악지도에 관한 소고, 특수교육학회지. **제15권 1호**, 5-30.
- 김나영 외(2008). 청각장애아동의 자기표현 향상을 위한 신체 표현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특수체육학회지. **제16권 제2호**, 25-44.
- 김병하 외(2000). **메도우/켄달 농학생용 사회·정서 측정도구에 의한 농학교 재학생들의 사회·정서 적응 특성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 김병하 외(2008). **청각장애아 교육 개정판**.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 김종인(2005). **행복을 주는 음악치료**. 서울: 지식산업사.
- 유은정 외(2010). **청각장애아동의 이해와 교과교육**. 서울: 학지사.
- 윤소연(2001). **집단음악활동이 취학 전 아동의 긍정적 자아 개념 향상에 미치는 효과**.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 이규식 외(2009). **청각장애아 교육**. 서울: 학지사.
- 이순화(2010). **아동음악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한진.
- 최병철(1998). 음악치료에서의 입상의 실제. **제5회 국제세미나자료집**, 1-55.
- 최병철 외(역) (2009). **아동음악치료**. WandaB. Lathom-Radoc 서울: 학지사.
- 최성규 외(2007). 레크레이션 활동이 청각장애학생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제9권 1호**.
-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2007). **특수아동의 심리**. 대구: 대구대학교출판부.
- Boxill, E. H.(1984). *Music Therapy for the Developmental Disabled*. Rockvills, MD: An Aspen Publication.
- Byun, J. H.(2011). *Impact of percussion instrument activities of national classical music on the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desire of educationally retarded students: with priority given to Modeumbuk*.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Choi, G. Y.(2001). *On a Sound Analysis of Samulnori Instruments*.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 W.W. Norton & Company(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Y.:W. W. Norton & Company.
- Edwards, E. M.(1975). *Music for the Exceptional Child*, Richard M. Graham MENC, 48-49.
- Gwak, S. S.(2008). *Study on the Notation Plan for Teaching Modeum Buk*.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Han, G. H.(2010). *A Study on a Teaching Plan for the Creative Nanta Program Using Collective Drums*. Master's thesis. Mokpo University, Jeollanam-do.
- Heo, S.(2010). *Study on performance of hearing-impaired children and duplicated disabilities in the performance of music activities: around mentality retarded children and hearing-impaired children*.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Gyeongsangnam-do.
- Jeong, K. A.(2008). *A case study on language improvement of cochlear implant pupil*.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Jeollabuk-do.
- Kim, E. J.(1987).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musical education for auditory handicapped children*.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J. H.(2009). *A Study on instructional plans for Gukak utilizing Nanta rhythm*. Master's thesis.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yeongsangnam-do.
- Kim, S. H.(2006). *A Study on a Method of Creative Instruction on Nanta, a Nonverbal Performance*.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Kim, S. Y.(2005). *The study on situation and future direction of the music education for the schools for the hearing impair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sangbuk-do.
- Kim, Y. D.(2004). *The Ecstatic World of the Drumbeat*. Chapter, 31, 123-131.

- Kim, Y. R.(2011). *A study on guidace for Modeumbuk Jagdan in special secodary school*.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Kwan, J. H.(2009). *The Effects of Group Music Therapy Program on the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y*.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Jeollabuk-do.
- Lee, Debora.(2010). *The comparative study of tone and rhythm perception of hearing impaired children using cochlear implant and hearing ai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sangbuk-do.
- Lee, Debora.(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Musical Affect Perception of Normal Hearing Students and Hearing Students and Hearing Impaired Students*. Literature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Gyeongsangbuk-do.
- Lee, E. K.(2007). *The Research on the Effect Influence by the Improvised Musical Performance with Korean Percussion Instrument upon the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Hearing Impairmen*.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Lee, J. Y.(2006). *The effect on game-paly program for sociability improvement of hearing impaired children*.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sangbuk-do.
- Lee, M. J.(2004). *The effect of group music therapy program through modeumbooknori on the depression, anxiety and self-esteem of the junior-highschool student with the depression tendency*. Master's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Busan.
- Lee, S. h.(2005). *The effects of youth goup activities on the development of sociality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sangbuk-do.
- Lee, S. J.(2008). *(The)effect of music play activity on self concept and social ability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Gyeonggi-do.
- Meadow, K. P.(1976).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of Deaf Persons*, *Journal of Rehabilitation of the Deaf*.
- Meadow, K. P.(1980). *Meadow/Kendall Social-Emotional Assessment Inventory for Deaf students*. Washington, D. C.: Gallaudet College(1980). *Deafness and Child Development*. Berkeley, C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1980). *Social-Emotional Assessment Inventory for Deaf Students*.
- Moors, D. F.(1996). *Educating the deaf: Psychology, principles and practices*. Boston, MA: Houghton Mifflin.
- Park, C. H.(2005). *A case study of vocabulary abilities improvement of hearing impaired children in a pair group musical*.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sangbuk-do.
- Park, J. H.(1988). *A study on socio-emotional development of the Korean deaf students*.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sangbuk-do.
- Paul, P. V., & Jackson, P.(1993). *Toward a Psychology of Deafness*. Boston: Allyn and Bacon.
- Seo, K. S.(2001). *A study on the emotional or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deaf students*.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Gyeongsangbuk-do.
- Seong, J. E.(2003).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Drum and its Koreanized development*.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Son, H. J.(2003).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on the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the hearing handicapped students*. Master's thesis. Copyright b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Gyeongsangbuk-do.
- Song, K. H.(2005). *The Effect on Group Play Activity for Social Development of Hearing impaired Children*.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sangbuk-do.

접수일 : 2012년 09월 15일

심사일 : 2012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2월 04일

[부록]

집단음악치료 회기별 내용

<1회기: 나는 최고야! - 관계형성 및 자기표현력 향상>

치료사는 선 받침대를 이용해 구성원들의 키 높이에 맞게 조정하고, 북을 반원 대형으로 진열하였다. 구성원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치료실로 들어서며 진열되어진 북을 두드려보며 악기(북)에 대한 친근함을 표현하였다. 치료사는 구성원들과 피아노 주변에 모여앉아 음악치료 활동의 과정을 소개하며, 음악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구성원들은 북을 탐색하며 북채를 잡는 법과 북의 가죽 면과 북의 테 부분 그리고 북채끼리 두드렸을 때의 소리를 익혔다. 치료사가 구성원들에게 북채를 나누어 주고 진열되어진 북 앞에 서게 하였다. 구성원들은 북채를 받고 자신이 원하는 북 앞에 서서 북을 자유롭게 두드렸다. 치료사가 북채를 머리 위에서 X자로 부딪히며 구성원들에게 '멈춤'신호를 보내자 구성원들은 치료사의 동작을 모방하며 북 연주를 멈추었다. 치료사가 인사장단을 소개하자 구성원들은 말 리듬에 맞추어 북을 연주하려고 노력하였다. 치료사가 북채를 두 번 두드리면 구성원들은 옆 북으로 이동하며 인사장단을 반복하여 연주하였다. 옆 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치료사의 신호에 집중하여야 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호흡을 맞추어야 했다. F와 G아동은 장단에 맞추어 능숙하게 북을 이동하였고, A, B, E아동은 자신의 연주에만 집중하느라 치료사의 신호에는 관심이 없고, C와 D아동은 자신의 연주를 채 끝내지 못하고 옆 북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구성원들은 옆 북으로 이동하는 활동을 놀이로 받아들이며 인사장단 연주를 열심히 수행하였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 북으로 연주하기에서는 다른 구성원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단순하게 연주하였는데, G아동은 특이하게 이름의 끝음절에 한 손은 북을 두드리고 다른 한 손은 머리 위에서 흔들며 북을 한 바퀴 돌았다.

<2회기: 그림자 소리 - 타인 인식 및 집중력 향상>

치료사가 구성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주며 인사장단을 연주하자 구성원도 치료사를 따라 연주를 시작하였다. 이때 다른 구성원들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긴장된 표정으로 옆 구성원의 연주에 집중하였고, 인사장단을 정확하게 연주한 구성원은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그림자소리 활동에서 구성원들은 리더의 발 움직임에 시선을 고정하고 리더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마다 북을 연주하였다. 리더는 자신이 움직일 때 마다 들려오는 북소리에 흥미를 보이며 조심스레 발을 움직였다. 이때 치료사가 더 넓은 공간의 움직임을 유도하였지만 구성원들은 제한적인 공간만을 활용하며 소극적으로 움직였다. 대부분의 리더들은 발 움직임을 구성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박으로 움직였는데, F와 G아동은 다른 구성원들의 집중력을 시험하듯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이며 연주를 유도하였다. 활동을 응용하여 리더의 발 움직임에 맞추어 북을 연주하지 못한 구성원이 다시 리더가 되는 음악게임에서 급한 성격을 지닌 A아동은 리더의 발이 땅에 닿지도 않았는데 북을 연주하는 경우가 자주 생겨 리더의 기회가 자주 돌아왔다.

<3회기: 나는 지휘자 - 관계형성 및 자기 인식능력 향상>

리더가 되어 구성원들에게 눈빛과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며 연주를 유도하였다. 리더의 손짓신호를 받은 구성원은 리더의 손짓이 멈출 때 까지 계속해서 북을 연주하였다. 리더가 다른 구성원을 향해 손짓을 보내게 되면 또 다시 그 구성원은 리더의 손짓에 맞추어 북을 연주하였다. 리더는 빠르기, 강·약, 소리의 길이, 멈춤과 시작의 변화를 주어가며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지시를 내렸다. 대부분의 리더들은 구성원들과 눈 맞추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한 구성원에게 한 번씩만 손짓을 보내어 단조로운 리듬패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손짓표현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여 구성원들이 불분명한 리듬패턴을 만들었다.

<4회기: 내 마음의 청진기 - 타인 인식 및 감정표현력 향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판을 보여주고 제시된 감정의 그림을 북으로 표현하였다. 이때 사용된 그림카드는 20종류의 감정이 표현된 내용이다. 구성원들이 관심 보였던 그림카드는 '가벼운 물건을 들었을 때 / 부모님께 혼났을 때 / 빠르다고 느낄 때 / 부모님과 나들이 갈 때 / 느리다고 느낄 때 / 깜짝 놀랐을 때 / 즐거운 일이 있을 때 / 케익을 받았을 때 / 쓴 약을 먹을 때 / 아기가 잠들었을 때 / 계단을 내려올 때 / 무서울 때' 그림카드였다. 가벼운 물건을 표현할 때는 북을 작고 빠르게 치고, 깜짝 놀랐을 때 표현은 북을 세게 한 번 치며 몸을 뒤로 물러섰다. 빠른 것을 표현할 때 구성원들이 가장 쉽게 알아냈다. 그러나 무서운 감정을 표현하거나 쓴 약을 먹는 감정을 표현할 때 북은 강하고 무거운 소리를 만들어 내면서 얼굴 표정은 연결되지 않는다. 리더가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지 구성원들이 알아맞히면 리더는 매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5회기: 움직이는 소리- 집중력 및 의사소통기술 향상>

치료사가 제시하는 말 리듬카드를 보고 그 다음 구성원에게 북연주로 전달할 때, 카드의 리듬패턴을 기억하기 위해 서둘러 연주를 시작하였고, 구성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천천히 리듬패턴을 연주하였다. 술래가 정확하게 리듬을 연주하면 모두들 환호성을 치며 좋아하였다. 구성원들은 술래가 쉽게 알아낼 수 있도록 술래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정확한 동작과 소리로 연주하였다. 술래에게 전달이 실패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술래가 정확하게 연주할 때 까지 반복하였다. 구성원들은 '바 * 나 나 / * 토 마 토 / 곱 * * * / 수 * 박 *' 과 같은 쉽이 있는 리듬표현은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하지만 강박에 변화를 주는 '쿵 쿵 따 리 / 해 바 라 기 / 성 심 사 랑' 과 같은 리듬패턴은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

<6회기: 한 마음의 소리 - 자긍심 및 신체표현력 향상>

구성원들은 축구경기나 야구경기에서 응원하여 보았던 경험들이 있어서 활동을 쉽게 이해하였다. 구성원들이 리더의 표현을 보고 '3-3-7'장단에 맞추어 북을 연주하였다. 리더는 구성원들을 향해 발과 팔을 이용해 장단을 표현할 때 동작표현이 소극적이고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다가 환호성을 유도하는 동작에서는 양팔로 원을 그리며 구성원들 주변을 크게 돌았다. 작은 연주소리를 유도할 때는 몸을 낮추고 큰 소리는 몸을 뒤로 젖히며 팔을 넓게 펼쳤다. 구성원들은 리더의 동작을 보며 북소리를 맞추었다.

<7회기: 말 리듬이야기 - 언어표현력 및 사회교류기술 향상>

구성원들은 두 모듬으로 나누어 말 리듬패턴과 동작표현을 만들었다. 각 모듬에서 만든 리듬패턴을 보고 상대편 모듬이 북으로 연주하였다. 이때 모듬에서 만든 말 리듬패턴은 * * 여 우 / 도 서 실 * / 수 * 영 장 / * 박 물 관 / 햄 버 * 거 / 돈 * 까 스 / * 배 트 맨 / * 슈 퍼 맨 / 닉 * 쿤 * / * 안 경 * / * 능 령 자 / 반 짝 반 짝 / * 귀 * * / 사 * 랑 해 / 대 한 민 국 / * 거 북 * 이었고, 구성원들은 말 리듬패턴에 어울리는 동작과 함께 표현하였다.

<8회기: 바람개비 연주- 민첩성 및 자존감 향상>

북을 원 대형으로 구성원의 수 보다 하나 적게 진열하고, 구성원들은 기차장단을 연주하다가 치료사가 소리 신호를 보내면 오른쪽에 있는 북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기차장단을 연주하였다. 반복적인 기차장단은 구성원들이 쉽게 연주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기에 적합하였다. 술래는 원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를 듣고 북을 차지하기 위해 원 대형에 합류하였다. 순발력이 늦은 술래는 북을 차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술래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사는 소리신호에 변화를 주어 남아 있는 술래를 지지해주었다.

<9회기: 도전 북소리 - 지속적 주의력 향상>

창작동요 <북소리>의 노랫말은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북을 연주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원들이 노래를 따라 하기에 어렵지 않았다. 음정은 맞지 않지만 노랫말은 최대한의 발음으로 표현하며 노래를 불렀다. 치료사는 노랫말이 적힌 시각적 자료를 천천히 읽어가며 구성원들의 노래를 지지해주었다. 구성원들은 노랫말 중에서 '슬픈 일은 사라지고 / 기쁜 일은 솟아나라 / 기분이 후련하다 / 새마음 밝아온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였다. <북소리>노래에 맞게 치료사가 제시한 간단한 장단과 동작표현을 익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여 연주하였다. 노래의 구성이 주고받는 형식이라서 구성원들은 노래의 '덩 따따 궁 따 궁'부분에는 모듬을 나누어 장단을 주고받았다.

<10회기: 북 즉흥연주 - 자기표현력 및 자긍심 향상>

북3개를 모듬으로 진열한 북의 가운데 서서 연주자는 좌·우 북까지 활용하여 자유롭게 연주하였다. 북을 모듬으로 진열하였더니 전 보다 연주자의 공간적 범위가 넓어지며 리듬패턴이 다양하고 활발해졌다. 치료사가 구성원들의 연주소리에 맞추어 피아노로 공감해주었더니 구성원들은 연주에 흥미를 보이며 연주를 오래도록 지속했다. 연주의 끝 부분에는 심벌즈를 한 번 연주하여 자신의 연주를 마무리하였다. 다른 구성원들은 연주자의 연주를 보고 자신들의 느낌을 이야기하였는데, 연주자의 표정, 북 소리의 크기, 빠르기, 연주자의 동작 표현 등을 평가하며 자신의 연주소감을 이야기하였다. 구성원들은 치료사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연주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였다.

<11회기: 연날리기 - 언어표현력 향상>

창작동요 <연날리기>의 노랫말은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동기유발에 도움을 주었다. 노랫말 중에서 '무지개 옷을 입고 / 저 하늘 높이 / 모두 다 어울려서 / 우리의 꿈을 신고'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표현하였다. 구성원들이 새롭게 만든 노랫말은 '에헤야 디야 바람 분다. 연을 날려보자. 저 아파트 높이 난다. 호랑무늬 옷을 입고 저 아파트에 나무를 흔들며 모두 다 어울려서 단짝 된다. 덩더쿵 노래 부른다.', '에헤야 디야 바람 분다. 풍선을 날려보자. 저 우주 높이 난다. 나비무늬 옷을 입고 저 우주에 불을 뿜으며 모두 다 어울려서 날아간다. 두동실 춤을 춘다.' 이다.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새 노랫말에 어울리는 장단과 동작을 넣어 북을 연주하였다. 한 손은 북을 두드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천천히 머리 위로 올리며 하늘 높이 날아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12회기: 징검다리 연주 - 사회 기술능력 향상>

구성원들은 북을 양손으로 들고 일렬로 서고, 술래는 구성원들의 맨 앞에 서서 '꼬부랑 할머니' 노래에 장단(두동 두동)을 맞추어 가며 반환점 돌아오기를 하였다. 구성원들은 술래가 자신의 북을 연주하고 나면 또 다시 대열의 끝에 가서 북을 내밀고 서서 술래의 연주가 연결될 수 있도록 기다렸다. 술래가 반환점을 돌아오면 그 다음 구성원이 술래가 되어 출발하였는데, 술래는 박자에 맞추기보다는 성급하게 반환점 돌아오는 일에만 집중하여 활동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치료사는 구성원들에게 정확한 장단이 연주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술래가 정확하게 장단을 연주하며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응용활동에서는 북을 들고 이동하는데 북이 무거워서 북 대신 소고를 활용하고 두 모듬으로 나누어 게임형식으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13회기: 파도연주 - 의사소통능력 향상>

리더는 치료사가 제시한 숫자악보를 보고 연주를 시작하면 그 다음 구성원은 리더의 연주를 모방하여 장단을 연주하고

그 다음 구성원에게 넘겼다. 구성원들은 자신의 차례에 집중하여 장단을 연주하였다. 치료사는 피아노 연주로 구성원들의 연주를 지지해주고 장단의 시작과 끝에 신호를 주었다. 과도연주는 A-E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응용활동에서는 구성원들이 리더가 만들어 낸 장단을 모방하기를 하였는데, 너무 까다롭고 불규칙적인 장단을 연주하여 다른 구성원들이 따라하는데 어려워하였다. 그러나 리더는 구성원 중에서 자신의 연주를 똑같이 모방한 구성원을 찾아냈다.

<14회기: 나만의 향기 - 자긍심 및 언어표현력 향상>

<친구에게>라는 노래의 빈 칸 부분에 리더의 장점을 넣어 노랫말을 완성하였다. 구성원들은 '멋지고, 착하고, 잘 웃고, 게임 잘 하고, 귀엽고, 유도 잘 하고, 축구 잘 하고, 재미있고, 씩씩하고, 똑똑하고, 잘 생기고, 친구 많고, 수영 잘 하고, 활발하고, 그림 잘 그린다.'라는 표현을 하였다. 대부분의 리더들은 칭찬을 받는 일에 부끄러워하며 구성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북으로 연주하였다. 북소리는 강하고 규칙적인 박으로 연주되었다.

<15회기: 작은 발표회 - 자신감 및 성취감 향상>

구성원들의 어머니와 선생님들 앞에서 그동안의 활동 중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발표회를 가졌다. 자유즉흥연주가 끝나면 관객들은 연주자에게 칭찬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고, 구성원들이 말 리듬을 연주하면 관객들은 그 리듬을 모방하여 손뼉으로 소리를 내주었다. 구성원들의 감정표현을 보고 감정카드 찾아내기에서는 연주자의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 보다 빠르게 알아내어 연주자를 기쁘게 하였다. <로봇 태권 V>와 <북소리>음악에 맞추어 북을 연주할 때 관객들은 손뼉을 치며 장단을 맞추어 주었다.